



IGAS2011전시회

Print your Future!

인쇄는 환경과 함께 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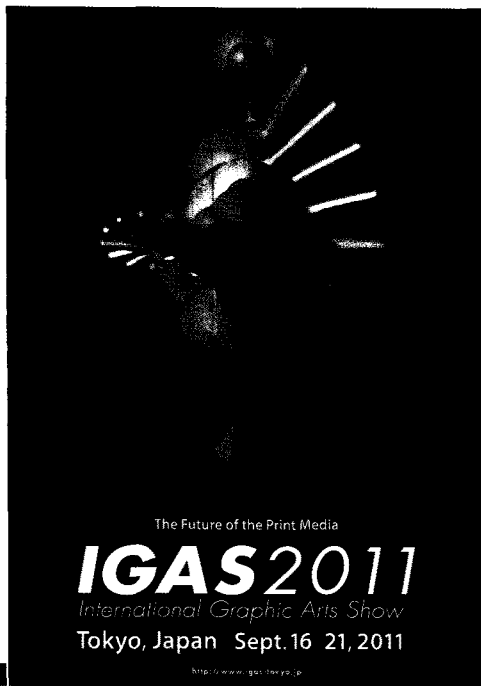
IGAS2011, 327개사 · 2724부스 규모로 열려

IGAS2011(International Graphic Arts Show)이 지난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를 주최한 일본인쇄기자재단체협의회는 이번 전시회는 최신 인쇄 디지털 그래픽 관련 장비와 기술을 한자리에 모인 국제 종합 인쇄기자전으로 현재 인쇄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솔루션 제안, 인쇄 산업의 장래와 최신 기술 동향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쇄인들의 국제적 교류를 도모하고, 관련 업계의 활성화와 교류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경제산업성, 도쿄도,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사단법인 일본인쇄산업연합회 등이 후원했으며 전시장의 면적은 51,380m², 전시 면적은 약 41,000m²였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고모리 요시하루 일본인쇄기자재단체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는 이번 전시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주변 교통망도 포함 회장 시설 인프라에는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IGAS를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목표로 준비 하셨던 많은 출전사의 강한 요청과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IGAS를 반드시 개최하라는 인쇄업계 여러분들의 강력한 성원에 힘입어 IGAS2011을 예정대로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고모리 회장은 “IGAS 2011은 Print your Future! - 인쇄는 환경과 함께 진화한다를 테마로 내걸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최첨단 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지향적인 긍정적인 솔루션과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 IGAS2011 전시회 개막식
2. IGAS2011 전시회 포스터
3. IGAS2011 환경 관련 행사 전경



이번 IGAS의 개최 규모는 300여개사 2700여 부스로 도쿄 빅사이트 동관의 모든 홀을 사용하여 개최됐다. 직전 전시회였던 IGAS2007에 비하면 약 60% 수준의 전시 면적이지만 프리프레스에서 인쇄, 포스트프레스에 걸쳐 세계의 주요 제조업체가 대거 참여하고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는 활기 넘치는 많은 벤처 기업들이 출전했다.

한편, 실무적인 면에서도 IGAS2011은 적잖은 변화를 보였다. 먼저 입장 시스템을 바꿔 터치하는 것으로 회장에 입장할 수 있는 IC 카드를 이용한 새로운 입장 시스템을 도입했다. 방문자는 철도와 버스에 사용되고 있는 IC 승차권 또는 IC 카드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를 입장 게이트에 가리는 것만으로 입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외 방문객이나 단체 고객, IC 승차권이 없는 인쇄인을 위해서도 IC 카드 대출을 실시해 편의를 제공했다.

다양한 심포지엄·세미나·포럼 동시 개최돼

IGAS2011 동안에는 환경 국제 포럼, Global Print 총회, 아시아 심포지엄(일본인쇄학회 주최), 추계 세미나(일본인쇄학회 주최), 세계인쇄회의(일본인쇄산업연합회 주최) 등이 열렸다. 또한 국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첨단 기술 영역'은 일본 전국의 대학을 주제로 14개 연구소에서 최신 연구 성과가 전시됐다. 또한 인쇄 관련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교육 훈련 학교, Global Print, CIP4 등의 단체에 의한 전시회와 인쇄의 환경 문제에서 환경 코너가, 화제의 전자 출판 관련 제품 기술에 대해서는 디지털 출판 코너가 인기를 모았다.

한편, 오프인쇄에 관련된 표준인쇄색인 매엽인쇄용 재팬컬러를 기준으로 하는 <Japan Color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표준인쇄인증', '매칭인증', '프루프운용인증', '프루프 기기인증'을 시작했다. Japan Color인증제도세미나에서는 'ISO표준 재팬컬러-매엽인쇄용2011'을 개정과 함께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71개 공장이 취득한 인증인 '표준인쇄인증' 및 다양한 인증을 소개했다. 주요 세미나의 내용은 앞선 표준화와 함께 덴츠사의 주문형 그래픽에 대한 설명이 함께 소개되었다.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환경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되었다. 주제는 '인쇄업계가 해결해야 할 환경 대응과 그 목표로 하는 곳'이었으며 1부에서는 2010년도에 실시한 '인쇄 산업 기계의 온실 가스 배출량의 산정 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의 내용을 소개했다.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는 교토 의정서의 약속 기한이 임박했으며, 지진 후의 전력 공급 부족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업계에 피할 수 없는 긴급 과제가 되고 있다. 인쇄 업계에서도 자동차와 가전 제품의 에너지 절약 기준과 같은 업계로의 통일 기준을 책정하고 환경 친화적인 인쇄 산업 기계의 개발 보급에 의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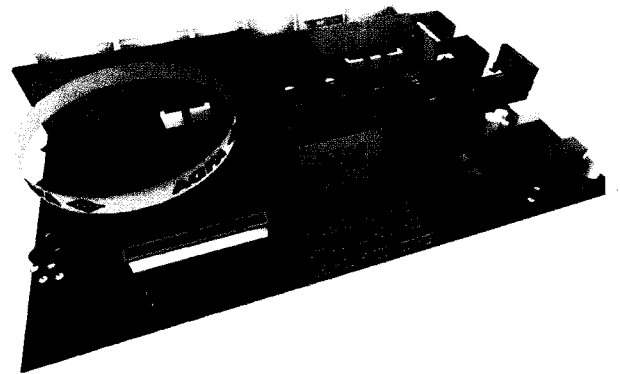
2부에서는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환경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테마로 환경활동에 대한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환경활동이 정말 좋은 것인지, 활동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 일본과 유럽의 인쇄업계의 활동 사례를 들며 해설했다.

한편, IGAS2011에서는 60분 투어를 실시, 협찬회사의 최신트렌드가 정리되어 있는 책자를 제공하는가 하면 협찬사를 중심으로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3월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취지의 동일본대지진부흥지원이벤트도 열려 호응을 받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협력으로 동일본대지진보도사진 갤러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사가 대지진 직후부터 7월까지 촬영한 사진 약 100점과 슬라이드를 방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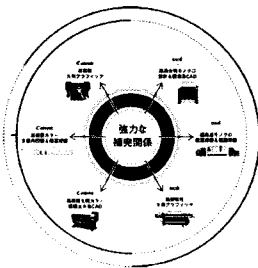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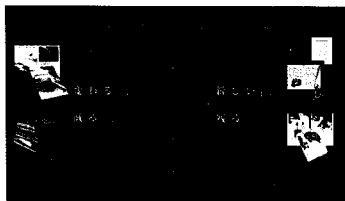
어포지7 · 아나푸르나 출품한 아그파그래픽스재팬



된 주요 제품군은 HP 인디고 3550, 5500, 7000, 7500, W7200의 디지털인쇄기와 잉크젯 웹 프레스인 T200, T300, T350을 선보였다. 옥내 및 옥외용 인쇄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성이 강화된 사이텍스 LX820, 850 등의 제품군도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일본HP는 <인쇄업계의 V자 회복시나리오>, <라벨 및 패키지지장에서의 디지털화>, 출판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아그파그래픽스재팬은 정판기능을 탑재한 어포지7을 야심 차게 선보였다. 아그파그래픽스재팬은 정판과정을 놀랄만큼 단축하였을 뿐 아니라 복잡한 판도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어 종래에 비해 대폭적인 생산성의 향상과 비용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입고와 교정도 인터넷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어포지 포탈, 원고와의 매칭정확도가 높을 뿐 아니라 품질유지와 조정도 간소화시킨 어포지 컬러도 함께 출품했다.

C7010VP · 컬러스트림3500 선보인 캐논



CTP출력기인 아발론도 N8-80XT의 최신 버전으로 출품되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발론도 N8-80XT는 시간당 최대 66판을 처리할 수 있어 고속작업을 지원한다. 다기능UV잉크젯프린터인 아나푸르나는 최대 인쇄를 158cm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두께 45mm까지 인쇄할 수 있다. 최대 해상도는 720×1440dpi에 달한다. 아그파그래픽스재팬은 이번 전시회에 작업 샘플을 전시했으며 IGAS2011에 앞선 다수의 전시회에서도 협찬 및 전시를 통해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캐논마케팅재팬(주)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오세의 ColorStream3500, DreamLabo5000을 필두로, 엔트리에서 초고속까지, 낱장 용지에서 용지까지, 전자 사진에서 잉크젯까지 캐논이 소유한 최신 디지털 인쇄 기술 모두를 선보였다. 캐논은 문서를 더 '자유롭게, 빨리, 정확하게 진화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차원의 인쇄를 선보였다고 강조했다. 캐논마케팅재팬은 디지털인쇄기, 가변 데이터인쇄, 잉크젯프린터와 교정시스템, 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품목을 출품했다.

